

여성·새내기 노린다…새학기 대학가 ‘이단 주의보’

MBTI·퍼스널컬러 진단 등 접근
SNS서 JMS 명단·구별법 확산도
교회 11곳·2개 대학 동아리 위장

3월 새내기를 겨냥한 사이버 종교 단체의 포
교 활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
된다.
최근 사이버 종교 교주들의 실체를 폭로한 다
큐멘터리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SNS상에서
퍼진 기독교복음선교회(JMS) 명단에 광주·전
남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 동아리도 포함되

면서 대학 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.
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초 광주·전남지역
대학교가 개강하면서 신입생을 겨냥한 사이버
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.
이들은 대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MBTI(성
격유형검사)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미끼로 접근
해 이름, 학과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.
또 해외 봉사, 선교 등 위장 행사를 앞세우거나 학
생회 임원 및 학생단체 간부임을 내세우기도 한
다. 이후 카페나 스터디룸 등 열린 공간에서 만나
면서 안심시킨 뒤 심리 상담이나 비공식적 성경
공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신도를 끌어들이는
다. 이들의 주 대상은 학과사정을 잘 모르는 신입
생이나 전과·편입생이며 활동 지속성이 짧은 남

성보다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실제로 포교활동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신입
생 이 모씨(19·여)는 “후문에서 버스를 기다리
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심리 검사를 해준다면
서 다가와 연락처를 받아갔다”며 “이후 계속 연
락하면서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했다. 선배들을
통해 사이버 종교의 포교 방식이라고 들었는데
계속 연락할까봐 무서웠다”고 토로했다.
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상에서
‘JMS 명단’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이버 종교
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. 각지 대
학교에서 일반 동아리처럼 위장해 사이버 종교
를 포교하고 있다는 파장이 일면서 동아리 가입
도 신중해진 분위기다. 지역에서는 광주 3개, 전

남 8개 교회와 2개 대학의 3개 동아리가 명단에
올랐다.
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대학들은 학생처와 총
동아리연합회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
교내 포교활동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해당 대학 관계자는 “명단에 포함된 해당 동
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며
실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”며 “과거에 존재했지
만 현재 사라졌거나, 소수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
모여 비공식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. 학
생복지팀이 총동아리연합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했
으며 조사 결과 실제로 포교 활동이 확인될 경우
학교 측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그러나 대학에서 사이버 종교의 활동을 막기

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. 캠퍼스는 누구나
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일뿐더러 일부 소수
의 학생들이 모이는 등 모든 종교 활동을 막을
수 없다는 것이다.
지역의 한 대학은 캠퍼스 내 포교 활동을 전면
금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적극 제지하고 있는 반
면 또 다른 대학은 학교 차원에서 종교 활동을
단속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.
대학 한 관계자는 “사이비 종교인지 이단 여
부를 확인할 수 없고 캠퍼스는 누구에게나 공개
된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포교 활동을
단속하기는 어렵다”며 “교문에 유사 종교 주의
안내문을 게시한 것 외에 단속 활동은 진행하지
않고 있다”고 밝혔다. /김혜린 기자



사랑 나누는 매 천연기념물 제323-7호 매 한 쌍이 최근 제주 해안 절벽에서 번식기를 맞아 사랑을 나누고 있다.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으로 손
꼽매라고도 불리는 매는 날카로운 발톱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솜뿔이 발가락을 한쪽으로 구부리고 짹짹기를 한다. /김태규 기자

도교육청, 디지털 전환 ‘아이넷 프로젝트’ 가동

전남도교육청이 미래교육 디지털 대전환을
위한 ‘아이넷(AE(I)-NET)’ 프로젝트를 가
동한다.
도교육청은 13일 주요정책회의에서 이런 내
용의 ‘전남교육 디지털 대전환 추진계획’을 발
표했다.
‘아이넷 프로젝트’는 ▲AI 교수·학습 지원

시스템 ▲디지털 전남교육 ▲디지털교육 인프
라 ▲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
향상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구현함을 목표
로 한다.
AI교수·학습지원 시스템(AI)은학생별 학습
수준 분석, 에듀테크 추천 등 에듀테크 교수 지
원 서비스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자기주도적

AI튜터 학생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이다.
디지털 전남교육(Education)은 디지털 인
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리더십, AI·SW교육
강화 및 디지털 교과서 중심 에듀테크를 활용한
미래교육 교수·학습을 지원한다.
디지털 교육 인프라(Infrastructure) 구축
은 미래수업을 위한 에듀테크 공간 구축 및 기
자재를 보급하고, 디지털 기반 업무 혁신으로
교원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제고를 이룬다는 계
획이다. /황애란 기자

지산유원지 무허가 놀이시설 5차례 불법 운영

지자체, 경찰 고발까지로

광주 지산유원지 놀이시설 운영업체가 정식
허가를 받지 않고 기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적
발됐다. 행정당국은 해당 업체를 관광진흥법 위
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.
1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에 모
노레일과 리프트카를 운영해 온 A사는 바이킹
과 범퍼카,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 4개를 새롭게
설치하고 지난해 6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.
며칠 뒤 해당 놀이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‘유
원시설업 허가’ 신청을 동구에 제출했지만, 안
내소 설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려됐다.
A사는 별도로 안내소를 설치한 뒤 지난 1월
다시 허가 신청을 냈고 동구는 같은 달 26일 허
가했다.

그러나 A사는 구청 허가가 나기 전부터 새로
설치한 놀이기구에 이용객을 태운 사실이 드러
났다.
이 놀이기구를 탄 일반인들이 사회관계망서
비스(SNS)에 게시하며 무허가 운영이 적발됐
다.
구청이 SNS를 통해 확인한 무허가 운영은
지난해 6월부터 최소 5차례 이상인 것으로 보고
있다.
A사는 안전성 검사를 마친 이후여서 안전에
는 문제가 없었고, 시범 운행 차원이었다고 해
명한 것으로 알려졌다.
동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
정식 허가 이전에 운행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
보고, A사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
고발한다는 계획이다. /김혜린 기자

한명진 전 방위청 차장, 순천대 석좌교수 임용

국립 순천대학교는 한명진(58·사진) 전 방
위사업청 차장을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임용했
다고 13일 밝혔다.
한 전 차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
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
했으며,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과대학원에서 경
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.
보성 출신인 한 전 차장은 1987년 행정고시
(31회)에 합격 후 재정경제원, 기획예산처, 대
통령실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과 제
10대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대



표적인 경제관료 출신
이다.
조정환 순천대 경제
학과 학과장은 “경제부
처에서 수십 년간 정책
개발에 매진하고 국방
분야까지 두루 근무한
한명진 석좌교수가 후
학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대학발전에도 이
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/황애란 기자

경매교육 [특수전문반]

기초반,중급반

※ 특수 전문반 모집 (10명)

- 1) 기초반 (기초부터 실전)
- 2) 중급반 (실전부터 ~)
- 3) 특수반 (유치권,법지,지분)
- 4) 투자반 (투자가능한분)

▶ 경매 물건 추천 ◀

북구 용봉동 (상가빌딩) ▶ 감정가 8억9천 → 최저가 6억2천
광산구 하남동 (사무나) 3층 ▶ 감정가 62억 → 최저가 35억
광산구 수완동 (상가 1층) ▶ 감정가 4억 → 최저가 4억
광주 광산구 수완동 (토지) ▶ 감정가 11억 → 최저가 11억
북구 신안동 (6층상가) ▶ 감정가 50억 → 최저가 35억
북구오치동 (주택) ▶ 감정가 2억 → 최저가 1억5천
남구월산동 (주택) ▶ 감정가 1억7천 → 최저가 7천700만

전남 장성군 북이면 (잡종지) 1,991평 ▶ 감정가 4억 → 최저가 4억

전원주택 (1채) → 7,000만

(토지 분양 중) 장성댐5분, 광주 20분, (6m도로접)

- ① 세컨하우스
- ② 소형 주택
- ③ 전기,수도,배수 완비
- ④ 주말 하우스 최고
- ⑤ 잔디,나무,일체 포함

★토지분양 → 전원주택 토지 (100평, 150평, 200평)

상가매매 (상무지구)

▶ 중심 상업지구 (유형적합)

▶ 유흥가능 (전용 100평)

▶ 시세 - 10억

▶ 급매 - 7억 (용4억)

(보3천,월수익 380만)

010-2614-9801

010-6670-9800